

컬러레이, 색조화장품 시장 회복 기대에 따른 마케팅 강화

▶ 색조화장품 시장 회복 기대에 따른 공격적 마케팅 전개

▶ 중국 내수 및 해외시장 판매 확대를 통해 진주광택안료 매출 성장시킬 것

<2022-03-02> 중국 화장품용 진주광택안료 전문 생산기업 컬러레이(900310, 대표이사 쥐중비아오)는 2022년 펄 안료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중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입지를 굳히겠다고 밝혔다.

컬러레이는 펄 안료 매출 확대를 건인할 주요 목표로 ▲중국 내수 판매 확대 ▲ 해외시장 판매 확대 ▲ 한국시장 판매 확대라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컬러레이는 중국 내수 판매 확대를 위해 중국 로컬 색조 브랜드에 집중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중국 최대의 색조 브랜드인 퍼펙트다이어리 및 화시즈 등 다수의 중국 로컬 브랜드를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중국 내수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컬러레이는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영업망 확대를 통해 해외 매출 실적을 성장시킬 계획이다. 미국의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으며 유럽의 명품 브랜드인 샤넬, 디올 등에서도 컬러레이의 제품을 원료로 사용한다. 올해 다수의 신제품을 출시해 품목 및 납품 규모를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시장의 주요 판매망인 한국 시장에도 영업력 강화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할 계획이다. 현재 컬러레이는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주요 OEM·ODM업체에 가성비 및 품질 좋은 펄 제품을 납품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컬러레이 관계자는 “2022년 색조 화장품에 대한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며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본다”며 “신공장 증설 및 원가 절감을 통해 생산력 및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시장 회복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